

실사단 평가와 대응책은

시민 열기로 개최 당위성 각인시켜라

대회 인프라·도시환경·선수촌 등 17개 부문 평가

프리젠테이션 통해 특별법 제정·정부 지원 강조

광주시는 1일부터 5일까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의 방문 기간 동안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개최 후보 도시인 광주가 '준비된 도시'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시는 스테판 버그스웨덴 집행위원장 단장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에게 폐적인 도시환경과 스포츠 인프라 등 완벽한 대회 운영 능력을 선보임으로써 대회 개최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실사단의 평가가 U대회 개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사 협장마다 대회 개최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 광주시를 대회 개최도시로 각인할 계획이다.

◇ 실사단 평가와 대응 전략= 실사단은 4박5일 동안 U대회 개최를 위한 광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도시 접근성, 대회 관련 인프라, 정부의 지원, 시민들의 개최 열기 등을 면밀히 살핀다.

주요 평가 항목은 ▲도시환경 ▲경기장 ▲선수촌 ▲총회·본부 호텔 ▲재정 ▲안전 ▲수송 ▲미디어 17개 부문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평가 항목에 맞춰 실사단이 방문하는 현장마다 광주 개최 당위성과 역량을 선보이기 위해 치밀한 전

략을 마련했다.

시는 실사단 방문자인 5·18 민주 묘지에서 FISU가 지향하는 이념인 평화와 화합이 광주 정신과 일치한다는 점을 5월의 현장에서 보여줌으로써 대회 개최 도시로서의 광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2002년 월드컵 4강전을 치러낸 역량을 실제 경기 통해 선보인다. 이를 통해 국제대회 개최 역량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는 복안이다.

시는 FISU 실사단의 방문 기간인 3~4일 월드컵 경기장과 빛고을 체육관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체육 행사를 마련했다.

3일 빛고을 체육관에서는 한국과 일본 남자 국가 대표팀의 핸드볼 대회, 엠주체육관에서는 700개팀, 1천500여명이 참가하는 시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돼 활력 넘치는 생활체육의 장을 펼친다. 월드컵 경기장에선 조선대와 전주대의 친선 축구 경기가 진행된다.

◇ 프리젠테이션 어떤 내용 담았나= 광주시는 실사단을 상대로 3차례의 공식 프리젠테이션과 광주 인프라 소개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광주의 대회 개최 역량을

■ 광주시 준비 어떻게

1월 유치위 구성...체육·문화계 214명 참여

그동안 광주시는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개최의 분수령이 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의 5월 1일 광주 방문에 맞춰 총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U대회 개최 도시로 국내 신청 도시들 가운데 광주가 확정되자 곧바로 U대회 실사 준비와 유치 활동을 위해 시의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지난 2월 13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FISU 본부에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U대회 유치 활동을 본격 전개했다.

이어 시는 지난 1월 17일 대회 유치의 핵심 동력인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학생 지원단 800여명은 이번 실사단 환영 행사, 광주 유치 기원 접두 등을 주도함으로써 광주의 유치 열기를 전달하게 된다.

시는 대회 유치의 관건이 시민들의 대회 유치 열기라는 데 주목, 광주시 5개 구청 주민들이 참가하는 범시민 유

현지 실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 하계 U대회의 주역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지원단'을 꾸렸다.

대학생 지원단 800여명은 이번 실사단 환영 행사, 광주 유치 기원 접두 등을 주도함으로써 광주의 유치 열기를 전달하게 된다.

시는 대회 유치의 관건이 시민들의 대회 유치 열기라는 데 주목, 광주시 5개 구청 주민들이 참가하는 범시민 유

치기원 결의대회를 이끌어내는 등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민 18만여명이 이번 실사단의 방문 기간 동안 공식 환송·환영 행사 등에 참석해 약속한 것도 이같은 노력이 밀려온다.

시는 또 실사단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시민 주도의 대대적인 환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근 'FISU 실사단 환영 시민 준비 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지난 주부터 경기장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요 행사장 등 이동로를 세밀히 점검하며 매일 보고회를 가졌으며 광주 5개 자치구를 비롯 대학, 교육청, 경찰청, 시체육회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관기관지원단도 대책 회의를 갖고 실사 상황별 시나리오를 최종 점검했다.

이밖에 시는 실사단 방문에 맞춰 기초질서 지키기 등 폐적인 도심 환경을 보여주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광주시 청사를 비롯해 광주시 주요 도로에 각종 꽃을 심는 등 환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FISU 실사단 주요 일정

일자	내용	장소
1일	광주 도착 호텔 이동 환영 만찬	오후 5시 40분 오후 6시 50분 오후 7시
2일	5·18 민주묘지 참배 광주시 환영 행사 인프라 프리젠테이션 U대회 후원 회장 오찬 광주 소개 프리젠테이션 실사단·유치위 합동 회의 광주 시장 환영 만찬 유치기원 시민 축제 참관	오전 9시 20분 오전 11시 오전 11시 35분 오후 2시 10분 오후 4시 10분 오후 6시 30분 오후 8시 20분
3일	스포츠 시설 프리젠테이션 국무총리 오찬 월드컵 경기장 실사 조선대 체육시설 실사 U대회 유치 위원장 환영 만찬 문화 예술 공연 관람	오전 9시 20분 낮 12시 10분 오후 3시 10분 오후 4시 20분 오후 6시 30분 밤 8시 10분
4일	대회 운영 프리젠테이션 실사단·유치위 합동 회의 광주 헬기 투어 실사단 기자회견 환영 만찬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20분 오후 6시 40분 오후 7시 30분
5일	대한 대학스포츠연맹 환영 조찬 광주 공항 출국	오전 7시 오전 9시 30분

韓총리, 3일 실사단 환영 오찬

표결 때 총대통령 영상 메시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의 광주 방문에 맞춰 정부가 실사위원들에게 후보 도시 광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공식 환영 행사를 주관하는 등 U대회 광주 유치에 힘을 보탠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31일 U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FISU 집행위원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유치 후보 도시 광주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다.

한승우 국무총리는 실사단 방문 사흘째인 3일 낮 1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스테판 버그 실사단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의 실사위원을 초청, 환영 오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인 광주의 스포츠 인프라와 국제 대회 개최 역량을 강조하고 하계 U대회 광주 유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U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표결이 이뤄지는 FISU 집행위원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U대회 개최 도시 광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한다.

이 대통령은 3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한국의 스포츠 역량과 유력 후보 도시로서의 광주의 강점을 소개하고 U대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U대회가 광주의 명운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실사 기간 중 광주를 방문,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 2013 U대회 광주 개최가 확정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0년에도 대구시의 2003년 U대회 유치가 확정되자 ▲국비 지원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조세 감면 ▲조직 위수 사업 등을 빠대로 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